

사별한 배우자 인형 제작·렌탈서비스

영국의 한 업체가 사별한 파트너의 형상으로 제작된 실물 크기의 인형 제작 및 렌탈 서비스를 실시해 화제가 되고 있다.



4,000파운드 (약 5,500달러)까지 올라간다. 고객은 머리카락 색과 눈, 손톱색과 몸무게까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고 문신이나 흉터까지도 재현해내게 된다. 특히 피부 등에 사용한 실리콘은 최대한 인체에 가깝게 만들어 사용자가 진짜 사람과 접촉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스탠리는 설명했다.

영국의 '더 선' 지는 지난 15일 영국 우스터셔주 브롬스그로브 출신의 제이드 스탠리라는 리얼돌 제작업자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 뒤 위안을 찾는 이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전했다.

스탠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똑같이 생긴 인형을 만들어달라는 주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들은 단지 지저분한 용도로 이를 사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심적인 위로를 받고 싶어서 이를 찾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탠리는 "이 같은 인형이 특히 사회 내에서 다른 이성에게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에게도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또한 성욕은 있지만 여성과 만나기를 꺼리는 홀아비들로부터 상품 주문이 많다고 스탠리는 설명했다.

스탠리가 제작한 제품은 단순한 성적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고인의 형상을 본뜬 제품이기에 때문에 배송에서도 기존의 섹스돌과 차별화가 이뤄진다. 주문은 인터넷을 통해서 받고, 인형이 배달될 때는 두 명 이상의 인원이 흰색 장갑을 착용한 채 구매자에게 '정중하게' 전달한다.

인형을 임대하는 경우도 있다. 임대가 끝나면 철저히 청소를 한다. 인형의 대여 비용은 1주일에 345파운드(약 500달러)이다. 그럼에도 영국에서는 수요가 폭발적이다.

스탠리는 "계속 주문이 증가하고 있으며 렌탈 예약이 향후 몇 주까지 밀려 있다."고 말했다.

인형의 가격은 주문이 얼마나 구체적인가에 따라

스탠리는 "계속 주문이 증가하고 있으며 렌탈 예약이 향후 몇 주까지 밀려 있다."고 말했다.

미인대회 참가자들이 '민머리'로 분장한 이유



최근 열린 미스 페루 선발대회 참가자들이 민머리 분장을 하고 무대에서 눈길을 모았다.

참가자들이 이와 같은 분장을 한 것은 유방암 환자를 응원하는 동시에 페루 여성들의 유방암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유방암과 싸우는 여성들은 항암 치료 등으로 인해 머리카락을 잃는 경우가 많다.

한 참가자는 무대에서 "페루에서 매일 11명의 여성들이 유방암 진단을 받는다. 이중 4명은 사망한다."면서

"페루에서는 6시간 마다 한 명의 여성이 유방암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참가자는 무대에서 긴 머리의 가발을 벗어던진 뒤, 자신을 홍보하는 멘트가 아닌 유방암과 투병중인 여성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 행사의 디렉터인 제시카 뉴튼은 "유방암과 싸우다 세상을 떠난 여성들을 위해 머리카락을 모두 없애는 무대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페루의 미인대회는 기존의 미인대회와는 다른 진정성을 선보이기도 유명하다.

지난해에는 참가자들이 자신의 신체사이즈 대신 여성폭력과 관련한 통계를 발표해 경종을 울리기도 했다.

한 참가자는 "제 사이즈는 2,202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9년간 살해된 것으로 보고된 여성의 수"라고 말했고, 대회 조직위원회도 참가자들이 통계 수치를 발표할 때 주요 여성 혐오 범죄 뉴스를 배경 화면에 노출하는 방식을 선택해 전 세계의 찬사를 받았다.

충격! 태아를 '흠친' 여성



▲ 숨진 23세 임신부

브라질의 40대 여성이 임신 8개월의 임신부 자궁에서 태아를 '강탈'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18일 영국 '메트로'에 따르면 최근 브라질 남동부의 한 마을에서는 복부가 찢어진 채 나무에 묶여 숨져있는 23세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현지 경찰이 수사 끝에 체포한 용의자 중 한 명은 안젤리나 로드리게스(40)라는 이름의 여성으로, 현지의 한 산부인과에 갓 태어난 미숙아를 데리고 갔다가 탈미를 붙잡혔다.

당시 아기를 본 의사가 아기의 건강상태와 산모로 보이지 않는 용의자를 의심했고, 이후 경찰에 신고하면서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로드리게스는 평소 아이를 가지고 싶었지만 임신이 되지 않자, 임신부의 태아를 '흠칠' 목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한 것으로 밝혀졌다.

로드리게스는 웹사이트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다가가 친분을 쌓은 뒤,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한 뒤 취한 그녀를 나무에 묶었고, 그 상태에서 날카로운 도구 등을 이용해 여성의 복부를 찢고 자궁에서 태아를 꺼냈다.

경찰은 "로드리게스는 자신 혼자 벌인 범행 일 뿐, 남편은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 우리는 남편뿐만 아니라 제3자도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숨진 피해자의 아기는 사건 과정에서 머리에 자상을 입었으며,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빅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